

&lt;서평&gt;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Tex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김준현\*

**1. 들어가는 말**

성서 번역의 역사는 길고 방대하다. 20세기 이후 성서 원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성서 번역도 더 많이 시도되었다. 『새번역영어성서』(*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NET Bible)의 시작도 성서학자들의 모임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음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필자가 소개하려고 하는 『새번역영어성서』(NET)는 기존의 번역 성서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점 하나만으로도 이 성서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외에도 『새번역영어성서』가 가지고 있는 성서 번역의 원칙과 그 장점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성서 번역 그 중에서도 영어 성서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봄으로써 『새번역영어성서』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본 뒤 『새번역영어성서』를 살펴보고 싶다.

**1.1. 『새번역영어성서』(NET)의 위치<sup>1)</sup>**

영어 성서 번역본의 시작을 어디에 두는가는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성서 번역을 기원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위클리프(Wycliffe)의 성서 번역은 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얀 후스(Jan Hus)에 의해 계속되었다고 볼수 있다. 물론 후스(Hus)가 마무리한 것인지 단순히 전해 받은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위클리프(Wycliffe)의 성서 번역이 현대 성서 번역과 가장 큰 차이는 그 대본의 차이이다. 위클리프(Wycliffe)는 그 대본을 라틴어 성서인 『벌게이트』(Vulgate)로 삼았기 때문에

\* 루터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부분은 NET의 Preface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서를 그 대본으로 삼는 오늘날의 성서 번역과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성서 번역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그 대본으로 삼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의 기원은 1522년 발행된 루터의 신약성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서는 그리스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기에 본 소고에서는 논외로 삼는다면 1525년에 나온 소위 말하는 틴들 성서 번역이 성서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서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은 이 성서를 번역하고 1535년 불잡혀 순교당했다. 틴들 성서가 중요한 이유는 거의 백년 뒤에 나온 『킹제임스역』(King James Version, 1611년)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백년 동안에 나온 중요한 성서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받는 성서는 바로 『제네바성서』(1560년)이다. 이 제네바 성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 1644년에 그 마지막 번역본이 출판되어 나온다.

그 이후 가장 중요한 번역본은 1885년의 『개역판성서』(Revised Version)이다. 이 성서는 『킹제임스역』(King James Version)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위를 이어 받았다. 이어 1901년 『미국표준번역』(American Standard Version)이 『개역판』(Revised Version)을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1952년 『개역표준번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이 출간될 때까지 몇 가지 종류의 영어 번역본이 나왔지만 『개역표준번역』(RSV)만큼 중요한 성서 번역본은 없었다. 『개역표준번역』(RSV)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초의 현대적 번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개역표준번역』(RSV)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성서 번역본들이 뒤이어 출간되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면 『주석성서』(Amplified Bible, 1965년), 『예루살렘성서』(Jerusalem Bible, 1966년), 『새미국표준번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년), 『리빙성서』(Living Bible, 1971년) 그리고 『새국제성서』(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1973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새국제성서』는 성서 번역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앞서 있었던 어떤 종류의 번역본 성서를 개정하거나 문장을 다듬은 정도로 번역하지 않았고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종류의 성서 번역본의 번역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새국제성서』는 출간되고 거의 30여 년 동안 영어 성서들 중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미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어표준성서』(English Standard Version, ESV, 2001년)가 출간되어 영어권 학자들 그중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서 번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소개하려는 『새번역영어성서』는 바로 이러한 성서 번역의 역사가운데서 출간된 성서임에 틀림없다. 즉, 이전의 어떤 성서 번역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현대어에 맞도록 수정한 성서 번역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서인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성서 번역본들이 모두 종이로 인쇄된 성서였다면 『새번역영어성서』는 처음으로 종이와 인터넷으로 출간된 성서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 1.2. 『새번역영어성서』의 목적

『새번역영어성서』의 기원은 1995년도 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학자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자 버전 성서 번역의 필요성을 논의했던 것이 그 기원이 된다. 그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것이었다. 즉, 인터넷으로 이 성서가 출간되었을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1990년대는 아직 인터넷 버전 성서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였다.

『새번역영어성서』는 “New English Translation”의 약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internet)의 ‘net’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새번역영어성서』의 번역자들은 다른 성서 번역들이 인터넷 버전 성서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에 인터넷에 자신들의 성서 번역을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무료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다른 어떠한 문서들과도 차이가 나는 독특한 입장이었다.

『새번역영어성서』의 번역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자신들의 성서 번역과 모든 번역 노트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목회를 최우선”(Ministry first)으로 하는 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2. 『새번역영어성서』

### 2.1. 『새번역영어성서』 개관

#### 2.1.1. 인쇄본 『새번역영어성서』의 모습

앞서 이미 밝힌 것처럼 『새번역영어성서』의 가장 큰 특색은 인터넷과 종이, 즉 책으로 동시에 출간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세대를 위한 성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책으로 출간된 성서와 인터넷으로 접하게 된 성서에서 번역된 본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성서 본문은 인쇄본 성서의 모습에서 다루지 않고 따로 다루겠다.

인쇄본 『새번역영어성서』의 특색은 첫째, 본문을 한 페이지에 2단으로 인쇄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여백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성서가 독자들이 읽을 때의 편의를 생각하고 좀 더 나은 편집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여백을 많이 주고 대화체의 경우에는 줄을 따로 하는 등의 편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본 성서의 경우 무게나 부피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차세대 성서 번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문 하단부에 간단한 각주가 인쇄되어 있다. 이 각주는 이전의 다른 영어 성서 번역본들 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좀 더 자세하다. 소위 말하는 주석 성경 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성서 번역본들이 한 페이지에 많아야 2-3개 정도의 각주를 제공했으나 『새번역영어성서』는 적게는 5-6개 많으면 10개까지의 각주를 제공하고 있다. 각주가 많은 것이 꼭 좋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그 분량에 있어서 압도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셋째, 성서본문은 모두 검정색 한 가지 색깔로 인쇄되어 있다. 즉, 예를 들면 『영어표준성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 색깔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새번역영어성서』는 다른 색깔로 표시하지 않았다.

넷째, 문단 구분이 되어있고 내용에 따라 소제목이 있다. 문단 구분이 있다는 것은 독자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단락을 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섯째, 시로 된 부분과 산문으로 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있다. 즉, 산문으로 된 부분은 계속해서 길게 연결되어 인쇄되었고, 시로 된 부분은 시의 특성을 살려 행과 연의 구분이 있다.

여섯째, 대화체로 된 부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대화를 독립적으로 배치함으로 독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 성서 본문이 다 끝난 뒷부분에는 용어 설명, 번역 원칙, 성서 각 책의 약어, 콘코던스, 『새번역영어성서』에 사용된 지도의 목록, 그리고 성서 지도가 있다. 이 성서 지도는 두 종류인데, 처음 몇 페이지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방식으로 그려진 성서 지도가 먼저 나온다. 이 성서 지도는 흑백으로 인쇄된 것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그려진 지도이

다. 이런 익숙한 지도 다음에 나오는 지도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는 위성 사진에 기반한 지도로서 마치 컬러 사진과 3차원 영상이 결합된 듯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지도가 과연 실제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1.2. 온라인 『새번역영어성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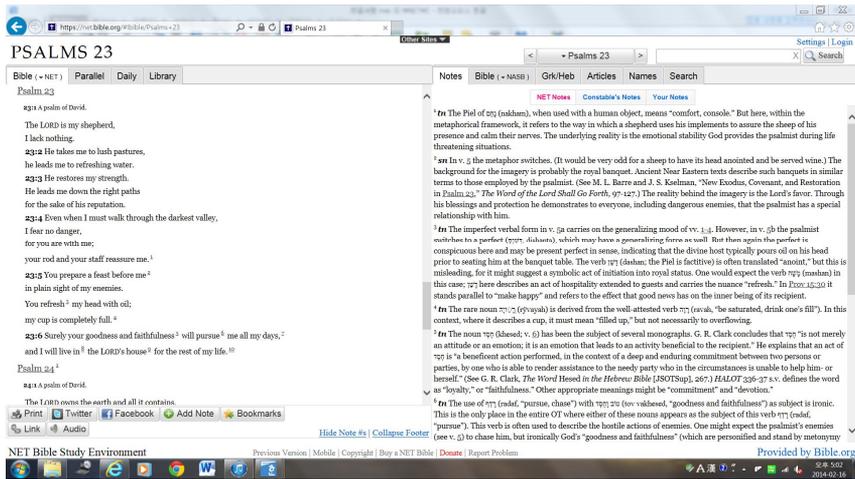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는 성서의 모습은 인쇄본 성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먼저 화면이 둘로 나뉘어져 있고, 왼쪽에는 성서 본문이 오른쪽에는 여러 종류의 각주가 나타난다. 이 각주는 모두 4가지 종류이다. 이것이 온라인 버전 『새번역영어성서』의 아주 중요한 특색이라 하겠다. 이 4가지 각주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주의 종류	요 약
sn (study note, 연구 각주)	일반 독자들을 위해 전문 용어등을 설명해 놓은 각주
tn (translator's note, 번역자 각주)	번역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번역자가 달아놓은 각주
tc (text-critical note, 사본 비평학 각주)	성서의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여 그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각주
map (지도)	본문과 관련된 지도가 있을 경우 나타나는 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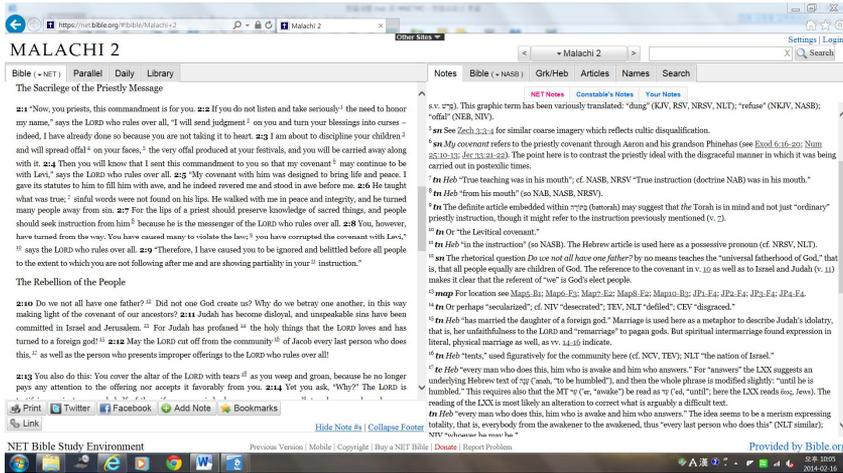
위의 각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인터넷으로 접하게 되는 화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 본문으로 독자들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예로 삼았다.<sup>2)</sup>

2) 이 화면은 <https://net.bible.org/#!/bible/Psalms+23> 에서 오려온 것이다.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일반 독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시편이기에 택한 것이다.



위의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은 성서 본문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성서 본문에 있는 숫자와 연결된 각주가 보인다. 책으로 된 시편 23편에는 각주가 모두 6개만 있으나 인터넷으로 보이는 화면에는 모두 10개의 각주가 있다. 흥미롭게도 각주의 종류는 sn과 tn이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새번역영어성서』에서 볼 수 있는 각주의 종류는 모두 4개이다. 이미 시편 23편에 나타난 sn과 tn 외에도 tc와 map이 있다. tc는 “text-critical notes”(사본 비평학 각주)의 약어이고, tn은 “translators’ notes”(번역자 각주)의 약어이고, sn은 “study notes”(연구 각주)이다. map(지도)은 약어가 아닌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 쓰인다. tc(사본 비평학 각주)는 성서의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본에서 달리 쓰여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각주이다. 다르게 쓰여 있다고 무조건 다 이 각주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주석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또는 번역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본 대신 본인이 선택한 사본으로 읽고 해석했을 경우에 첨가되는 각주이다. 참고로 『새번역영어성서』는 구약의 경우 『비블리아헤브라이카슈튜트가르텐시아 구약성서』(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를, 신약의 경우 『네스틀레-알란트 27판 신약성서』(Nestle-Aland<sup>27</sup>, NA<sup>27</sup>)를 그 대본으로 삼았다. 특히 『새번역영어성서』의 신약에서 [註]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다르게 쓰여진 사본이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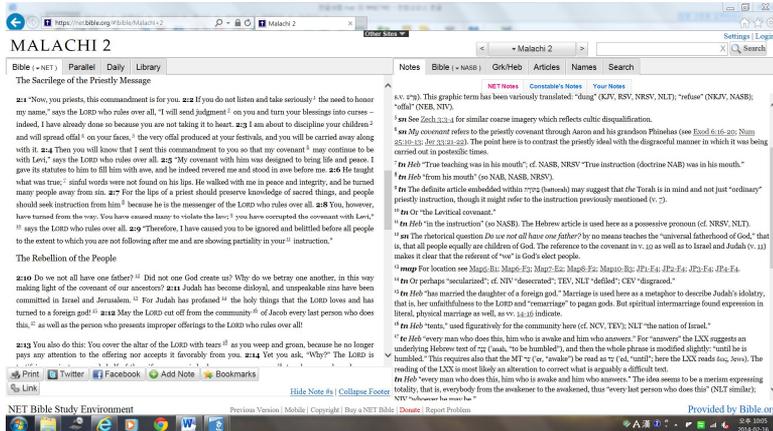
tn(번역자 각주)는 번역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안 번역, 또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옵션 및 기타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각주이다. 책으로 출판된 『새번역영어성서』의 서문에 의하면 이 번역자 각주의 수는 무려 60,932개라고 한다.<sup>3)</sup> 이는 그만큼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각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Or”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대안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다. “Heb”, “Aram”, 또는 “Grk”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어원적이고 문장론적 그리고 주석적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전적 설명과 문법과 주석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각주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이다.

sn(연구 각주)는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각주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 필요한 설명과 잘 모르는 용어에 대한 해설들을 제공하고 있는 각주이다. 마지막으로 map(지도) 각주는 말 그대로 성서의 특정 지명을 보여주고 있는 각주이다. 성서의 모든 지명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명에 대한 지도를 보여준다. 특징은 위성 사진을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거기에 지명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의 장점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마치 그곳에 가본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에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종이 지도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이 지도가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동서남북에 맞추어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지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이 익숙하지 않은

3) NET BIBLE: Reader's Edition (Texas: Biblical Press Study Press, 200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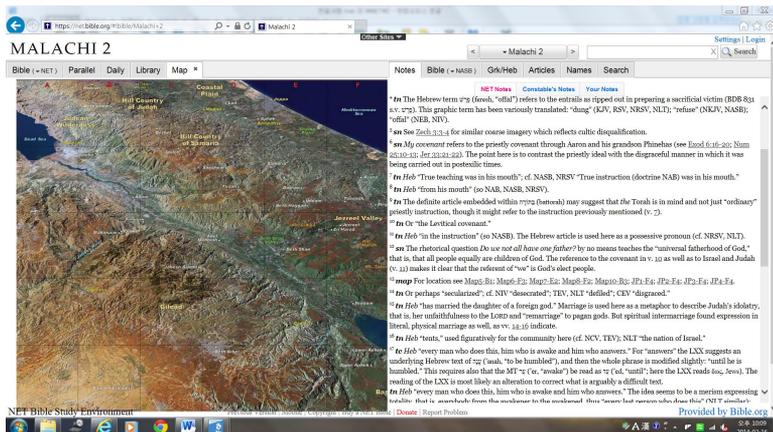
탓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c와 map 각주가 있는 화면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한다.



위의 그림은 말라기 2장을 보았을 때의 화면이다.<sup>4)</sup> 먼저 tc 각주는 말라기 2:12의 중간부분에 보면 각주 17번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른쪽 각주 화면에 17번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map 각주를 살펴보자. 말라기 2:11의 각주 13번을 왼쪽의 각주 화면에서 보면 map이라 쓰여 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Map5-B1이라 쓰여진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4) 이 화면은 <https://net.bible.org/#!/bible/Malachi+2>에서 오른온 것이다.

위의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명은 이스라엘의 지역 명을 영어로 음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새번역영어성서』의 인터넷 버전은 인터넷으로 성서를 읽는 독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은 『새번역영어성서』의 목적과 잘 부합하고 있다. 즉, 인터넷 버전 『새번역영어성서』는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을 한 번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구들을 다 모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새번역영어성서』의 인터넷 버전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성서는 인터넷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메일(e-mail)을 통해 주고 받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위 말하는 댓글을 다는 형식, 파일을 공유하는 형식을 지원하여 성서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위의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로그인(Login)이라 쓰여진 부분이 있다. 즉, 로그인을 통해 위에서 밝힌 나의 의견을 『새번역영어성서』 번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더 다양한 번역이 새로운 버전에서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요소는 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 2.2. 『새번역영어성서』 본문 살펴보기

### 2.2.1. 번역 원칙 살펴보기

소제목에 지시한 바와 같이 이번 소 단락에서는 『새번역영어성서』의 본문 번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sup>5)</sup>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라 천명한 『새번역영어성서』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그들이 제안한 번역 원칙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먼저 언급한 후 본문을 살펴보려고 한다.<sup>6)</sup>

먼저 『새번역영어성서』 번역 팀은 어떤 성서 번역도 완벽한 번역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역동적 등가 법칙(dynamic equivalence)의 번역으로도 완벽한 번역이 불가함을 성서 번역 원칙의 서두에 밝히고 있다.

5) 본 소고에서 필자가 선택하여 살펴본 본문들은 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들이다. 구약 본문들이나 신약 본문들이 일반 독자들에게 친숙한 본문들이어서 하나의 예로 선택하여도 독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아는 부분이라 선택된 본문들임을 밝힌다.

6) NET Bible Principles of Translation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첫 번째로 필자의 이목을 끄는 것은 성서 각권의 저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각 책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존중하여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즉, 같은 단어와 문법이라도 저자가 다르고 그 쓰여진 상황이 다르며 또한 대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이유가 『새번역영어성서』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영어 표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대화체로 번역된 곳과 표준 영어, 즉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아닌 경우도 있음을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표준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화체로 된 부분은 그 때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표준 영어가 아닌 단어들을 선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어를 선택할 때 일반 성인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를 선택하였으며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과 관련되어 기독교인들만이 아는 익숙한 명사들은 각주를 사용하여 최대한 설명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새번역영어성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비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서를 읽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성서의 원어가 너무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현대 영어 어법에 맞추어 짧게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였으며, 관용구들을 하나의 단어로 일관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문맥과 그 상황에 맞게 몇 가지로 번역하는 원칙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동적인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이 부분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영어 표현에서 수동태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능동태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영향이 『새번역영어성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번역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2. 구약 본문 살펴보기

『새번역영어성서』는 번역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중도적인 번역을 택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성서 본문을 살펴보면 가능한 문자적 번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역동적인 번역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새번역영어성서』는 번역함에 있어서 아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도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편 23편을 예로 들어 보면 『새번역영어성서』는 『영어표준성서』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새번역영어성서』의 번역은 좀더 분명하게 시편의 저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저자가 무엇을 그의 마음속에 그리며 이 시를 만들었는지를 알게 해 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한글 『개역개정』과도 같이 비교하려고 한다. 물론 영어 번역과 한글 번역을 나란히 놓고 그 번역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번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새번역영어성서』가 영어로 쓰여진 것이기에 비교는 가급적 같은 영어로 쓰여진 『영어표준성서』와의 비교를 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개역개정』과도 비교하였음을 밝혀둔다.

시편 23편

	NET	『개역개정』	ESV
1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2	He takes me to lush pastures, he leads me to refreshing water.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3	He restores my strength. He leads me down the right paths for the sake of his reputation.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4	Even when I must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fear no danger,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reassure me.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5	You prepare a feast	주께서 내 원수의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plain sight of my enemies. You refresh my head with oil; my cup is completely full.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6	Surely your goodness and faithfulness will pursue me all my days, and I will live in the LORD's house for the rest of my life.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영어표준성서』는 “I shall not want”라고 쓰고 있는데 비해 『새번역영어성서』는 “I lack nothing”이라고 쓰고 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개역개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편의 저자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sup>7)</sup> 『새번역영어성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절에서도 히브리어 단어  $\text{נִינְיָן}$ 를 번역할 때도 『새번역영어성서』와 『영어표준성서』는 서로 다른 번역을 선택하였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초록’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만 번역하였을 때는 그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말 성서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부분이다. “푸른 초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연상되는 이미지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오히려 식물이 무성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sup>9)</sup> 그렇다면 오히려 이 단어는 『새번역영어성서』가 선택한 “lush”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 경우는 『영어표준성서』는 문자적 번역을 시도하였고 『새번역영어성서』는 역동적 번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반면에 『새번역영어성서』가 2절 하반절에서 선택한 “refreshing waters” ( $\text{מִי־חַיִּים}$ )는 오히려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양떼와 목자 사이를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한 물가를 뜻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목자가 인도하는 안전하며 설만한 물가를 지칭하는 것이 더 적

7) Mitchell Dahood, *Anchor Bible Commentary, Psalms*, vol.1 (New York: Doubleday, 1982), 146.

8)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Hilton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3), 307.

9) Ibid.

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영어표준성서』는 3절 하반절에서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의”(righteousness)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צְדָקָה**이다. 물론 이 단어가 “의”를 지칭하는 righteousness로 번역되는 것도 타당한 번역이겠으나 오히려 이 단어가 주는 혼동스러움을 생각해 보면 『새번역영어성서』가 선택한 “right”도 현대 독자들을 위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후드(M. Dahood)는 “풍성한”<sup>11)</sup>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크라우스(H-J Kraus)는 “올바른”<sup>12)</sup>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이 시편 저자 의도를 잘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목자는 양떼를 옳은 길, 잘 알고 있는 길로 인도하여 안전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잘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옳은 길” 혹은 “익숙한 길”로 번역해 보는 것도 이 시편 저자의 뜻을 잘 살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4절에서 『새번역영어성서』는 전통적인 번역인 위로, 위안(comfort)을 안심시키다(reassure)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새번역영어성서』는 긴 본문비평 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נִחַם** 동사로서 원래 이 동사가 피엘(Piel, 능동강조형태) 형태로 쓰이면서 그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 그 의미는 위로, 위안(comfort, console)이다. 그러나 여기서 은유적으로 쓰인 점을 고려한다면, 목자는 자신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양떼에게 자신이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그들을 진정시켜 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위협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정된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크라우스(H-J Kraus)도 다른 이유이지만 『새번역영어성서』와 동일하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3)</sup>

또한 5절에서도 『새번역영어성서』는 『영어표준성서』와 다른 번역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식탁(table)이다.<sup>14)</sup> 『새번역영어성서』는 이 단어를 축제

10) Mitchell Dahood, *Psalms*, 146.

11) Ibid.

12)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307.

13) Ibid., 304.

14) Mitchell Dahood, *Psalms*, 147. 다후드는 이 단어가 식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즉, 음식을 올려놓는 일종의 담요 같은 것으로 보았다.

(feast)로 번역하고 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text{מִשְׁכָּנִי}$ 이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식탁’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번역영어성서』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 혹은 “잔치”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번역은 새로운 한글번역을 위해서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절 하반절에서 필자는 새로운 성서 번역이 줄 수 있는 논쟁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영어표준성서』와 『개역개정』에서는 “You anoint my head with oil” 즉,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번역된 것을 『새번역영어성서』에서는 “You refresh my head with oil”라고 번역하였다. 『새번역영어성서』번역자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했으리라 생각된다. 즉, 이스라엘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양들이 머리에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름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였다.<sup>15)</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먼 곳에서부터 온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줌으로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유추하여 이러한 번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님에게 이러한 대접을 함으로서 최고의 예를 갖추며 손님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행위였기에 이러한 번역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이스라엘의 풍습은 잘 살려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왕이며 선지자라는 상징성을 놓쳐버렸다. 이것은 새로운 번역을 할 때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영어표준성서』와 『새번역영어성서』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함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번역을 보이고 있다. 『영어표준성서』는 “흘러 넘치는”(overflows)을 『새번역영어성서』는 “완전히 가득찬”(completely full)으로 번역한 것으로 『개역개정』에서는 “흘러 넘친다”로 번역된  $\text{מָלָא}$ 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새번역영어성서』는 번역자 해설을 붙이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흔하게 쓰이지 않은 명사로서 이 단어의 동사 어원은 익숙한 단어인  $\text{מָלַא}$ 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컵이 가득 찼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단어가 반드시 흘러 넘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크라우스도 이 단어를 “가득 찼다”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6)</sup> 『새번역영어성서』의 이 번역이 역동적인 번역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15)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305.

16) *Ibid.*, 305.

이다. 다만 이러한 번역을 통해 현대 독자들이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사야 7:14인데 이 구절에서는 『새번역영어성서』가 전통적인 구절을 어떻게 새롭게 번역했으며 그 번역을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새번역영어성서』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이 달라스 신학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서 번역을 따르지 않은 구절들이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사야 7:14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7:14는 마태복음 1:23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다.<sup>18)</sup> 그런데 『새번역영어성서』는 “virgin”(처녀) 대신에 “young woman”(젊은 여인)이란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지난 몇 십년동안 계속되어온 논쟁이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논쟁점이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논쟁점인지도 잘 모르고 지내는 표현이다.

대부분의 최근의 성서 번역들은 이 구절에서 “virgin”(처녀)이란 단어를 선택하였다(ESV, NLT, NIV). 최근의 성서 번역자들이 이 구절들과 관련된 논쟁들을 모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성서 번역들이 “virgin”(처녀)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그 단어를 바꾸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고려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즉 성서 독자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은 이 논의의 근본적인 이유와 언어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의 변화에만 민감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새번역영어성서』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단어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각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이 각

17) 이 성서 번역에 참여한 필진들 25명중 19명이 달라스 신학교와 관련이 있다. 달라스 신학교는 침례교와 관련이 있는 신학교로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18) Eduard Schweizer, 『국제성서 주석: 마태오복음』 황현숙, 황정옥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35.

19) NET 각주: *Traditionally, “virgin.” Because this verse from Isaiah is quoted in Matt 1:23 in connection with Jesus’ birth, the Isaiah passage has been regarded since the earliest Christian times as a prophecy of Christ’s virgin birth. Much debate has taken place over the best way to translate this Hebrew term, although ultimately one’s view of the doctrine of the virgin birth of Christ is unaffected. Though the Hebrew word used here (עַלְמָה, ‘almah) can sometimes refer to a woman who is a virgin (Gen 24:43), it does not carry this meaning inherently. The word is simply the feminine form of the corresponding masculine noun עֶלֶם (‘elem, “young man”; cf. 1 Sam 17:56; 20:22). The Aramaic and Ugaritic cognate terms are both used of women who are not virgins. The word seems to pertain to age, not sexual experience, and would normally be translated “young woman.” The LXX translator(s) who later translated the Book of Isaiah into*

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사야 7:14는 마태복음 1:23과 연관이 있는 구절로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신약성서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각주로서 독자들이 ‘virgin’(처녀)이란 단어 대신에 ‘young woman’(젊은 여인)으로 번역한 의도를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7:14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들은 『새번역영어성서』 성서 번역자들이 번역에 있어서 원어에 충실하고자 하는 원칙을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면 마태복음 본문을 어떻게 다룰지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번역영어성서』의 약점일 것이다.<sup>20)</sup>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3:25-26과 갈라디아서 3:1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창세기 22:18과 관련이 있는데 새롭게 제시된 창세기의 번역으로 인해 신약의 두 부분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욥기 16:20이다.

#### 욥기 16:20

NET	ESV	개역개정
My intercessor is my friend as my eyes pour out tears to God	My friends scorn me; my eye pours out tears to God,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표준성서』와 『개역개정』은 비슷한 반면에 『새번역영어성서』는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표준성서』와 『개역개정』은 “My friends scorn me” 혹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라고 번역한 부분을 『새번역영어성서』는 “My intercessor is my friend”라고 번역하였다. 왜 이러한 새로운 번역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tn(번역자 각주)을 통해서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sup>21)</sup> 이것을 여기에 전부 번역할 필요는 없기에

*Greek sometime between the second and first century B.C., however, rendered the Hebrew term by the more specific Greek word παρθένος (parthenos), which does mean “virgin” in a technical sense. This is the Greek term that also appears in the citation of Isa 7:14 in Matt 1:23. Therefore, regardless of the meaning of the term in the OT context, in the NT Matthew’s usage of the Greek term παρθένος clearly indicates that from his perspective a virgin birth has taken place.*

20) Bernard Ra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Wilde, 1956), 240. 버나드 램은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항상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오래전 이론이지만 현대에도 그 가치가 충분한 이론이다.

21) tn *The first two words of this verse are problematic: מְלִיטַי רֵעָאִי (mélitsay re’ay, “my scorners are*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어의 단어들에 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구절이며 따라서 각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유추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2.2.3. 신약 본문 살펴보기

신약성서 본문은 특별히 ‘성’(性)과 관련되어 『새번역영어성서』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밝힌 것처럼 이 성서가 구상되는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지향하며 동시에 성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번역 원칙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대상 독자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한다는 원칙도 있었음을 밝혔다. 문제는 신약성서 본문에서 『새번역영어성서』 번역자들은 ‘성’(性)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따랐으나 결과적으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번역이 되기보다는 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새번역영어성서』는 로마서 1:13에 나오는 단어인 아델포이(ἀδελφοί/*adelphoi*)를 번역할 때 “형제, 자매”로 번역하였다. 그리스어의 뜻은 “형제”이다. 『영어표준성서』도 이렇게 번역하면 왜 이렇게 번역하였는지 간단하게 각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앞서도 밝힌 것처럼 ‘성’(性)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을 따른 것으로 이것은 독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디모데전서 2:5에 나오는 단어인 안드로포스(ἄνθρωπος/*anthropos*)를 번역할 때 “남자”(man) 대신에 “인류”(human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새번역영어성서』 번역자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

*my friends*”). The word מְלִיטִים (*melits*), from or related to the word for “scorner” (מְלִיט, *lits*) in wisdom literature especially, can also mean “mediator” (Job 33:23), “interpreter” (Gen 42:23). This gives the idea that “scorn” has to do with the way words are used. It may be that the word here should have the singular suffix and be taken as “my spokesman.” This may not be from the same root as “scorn” (see N. H. Richardson, “Some Notes on *lis* and Its Derivatives”, *VT* 5 [1955]: 434-36). This is the view of the NIV, NJPS, JB, NAB, as well as a number of commentators. The idea of “my friends are scorners” is out of place in this section, unless taken as a parenthesis. Other suggestions are not convincing. The LXX has “May my prayer come to the Lord, and before him may my eye shed tears.” Some have tried to change the Hebrew to fit this. The word “my friends” also calls for some attention. Instead of a plural noun suffix, most would see it as a singular, a slight vocalic change. But others think it is not the word “friend.” D. J. A. Clines accepts the view that it is not “friends” but “thoughts” (עֲרֵא, *rea*). E. Dhorme takes it as “clamor”, from עֲרֵא (*rua*) and so interprets “my claimant word has reached God.” J. B. Curtis tries “My intercessor is my shepherd”, from רוֹעִי (*ro'i*). See “On Job’s Witness in Heaven”, *JBL* 102 [1983]: 549-62.

도의 남성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새번역영어성서』는 원어에 충실하게 한다는 원칙이 있었음에도 ‘성’(性)과 관련된 표현을 포괄적 혹은 중립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도 현대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포괄적 혹은 중립적 번역을 할 때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 혹은 중립적인 번역이 오히려 그 의미를 혼동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sup>22)</sup>

『새번역영어성서』가 ‘성’(性)과 관련된 표현을 번역할 때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현대의 경향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이 성서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성’(性)과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새번역영어성서』의 다른 본문인 요한계시록 3:20에서는 다른 성서 번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덜 포괄적인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계 3:20

Ἰδοὺ ἔστηκα ἐπὶ τὴν θύραν καὶ κρούω· ἂν τις ἀκούσῃ τῆς φωνῆς μου καὶ ἀνοίξῃ τὴν θύραν, [καὶ] εἰσελεύσομαι πρὸς αὐτὸν καὶ δεῖπνήσω μετ’ αὐτοῦ καὶ αὐτὸς μετ’ ἐμοῦ.				
NET	NRSV	NLT	NIV	개역개정
Listen! I am standing at the door and knocking!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to <b>his</b> home and	Listen! I am standing at the door, knocking; if <b>you</b>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b>you</b> and eat	“Look!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b>you</b>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b>we will share</b>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b>him</b> ,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22) 잠언 6:20을 번역하면서 『새번역영어성서』 번역자들은 “son”이란 단어 대신에 “child”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6:24에 보면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대화이다. 따라서 “son”이란 단어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23) 이광복, 『계시록 설교노트』(서울: 도서출판 흰돌, 1997), 63; G. E. 래드, 『요한계시록』, 이남중 역(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1991), 150-151.

share a meal with <b>him</b> , and <b>he</b> with me	with <b>you</b> , and <b>you</b> with me.	<b>a meal together as friends.</b>	and <b>he</b> with me.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	--	---------------------------	--------------------------------

요한계시록 3:20에서 보면 『새개역표준번역성서』(NRSV)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었음을 알게 된다. 『새리빙성서』(NLT) 역시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좀더 의역하였음을 알게 된다. 『새국제성서』는 “he”(그)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새번역영어성서』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개역 개정에서도 『새번역영어성서』와 『새국제성서』처럼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선택하여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번역영어성서』는 『새개역표준번역성서』나 『새리빙성서』와는 다르게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남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의 본문도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면 인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번역영어성서』는 요한계시록 3:20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성(性)’에 대해 그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대명사에 나타나는 인칭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3. 고려해야 할 점

『새번역영어성서』의 서문에 보면 이 성서의 번역 목표를 “읽기 쉽고 정확하며 그리고 명쾌한 번역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는 좀 더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필자가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으나 몇몇 구절들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다. 『새번역영어성서』는 직역하였을 때 “fear the LORD”로 번역되는 구문을 문맥에 따라 세 개의 서로 다른 번역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fear the LORD, 두 번째는 revere (or reverence for) the L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pect (or respect for) the LORD이다. 학개서 1:2에서 쓰인 respect the LORD는 파급력이 상당히 위축된 느낌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구절들이 좀 더 강한 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사기 4-5장에 나오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열왕기하 22:14에 등장하는 여 선지자 홀

다에 번역 부분들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창세기 1:5 이하에 나오는 “day”(עֵר/יּוֹם)의 각주 부분을 보면 너무 확정적으로 번역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day”를 생각할 때 24시간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기간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새번역영어성서』에서는 ‘성(性)’과 관련된 표현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일관적으로 이 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에서는 “son” 대신에 “human”을 그리고 “son of man” 대신에 “mankind”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성(性)’을 정확히 번역하겠다는 그들의 원칙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하나의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번역영어성서』의 지도는 이스라엘의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작업한 것이기에 아주 웅장하며 사실적이다. 이렇게 지도가 웅장하고 사실적인 것으로 인해 독자들이 성서의 지명들과 또 성서에 묘사된 사건들의 장소를 정확히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이나 이제 막 성서의 지리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지는 의문이 든다. 즉, 위성 사진에 근거하여 작업한 지도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보아온 지도들과는 그 방향이 바뀌어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 4. 나가는 말

『새번역영어성서』가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로 된 책과 인터넷으로 출판한 2가지 기획은 매우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세대, 즉 인터넷 세대를 위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것이다. 특별히 본문 번역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비 기독교인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새로운 성서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을 만들었고 사용해 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교회가 준비하는 새로운 성서 번역이 인터넷으로도 출간된다면 당연

히 그 번역은 인터넷 세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세대의 특징은 짧고, 간단하고, 속도감을 중요시하는 세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번역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새번역영어성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은 취하여 더 발전시키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아야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원칙, 인터넷용 성서, 새번역영어성서, 연구 각주, 번역자 각주, 사본비평 각주.

Translation principle, Upline Bible, NET Bible, study note(sn), translator's note(tn), text-critical note(tc).

(투고 일자: 2014년 2월 17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NET BIBLE: Reader's Edition*, Texas: Biblical Study Press, 2005.

이광복, 『계시록 설교노트』, 서울: 도서출판 흰돌, 1997.

래드, G. E., 『요한계시록』, 이남중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1991.

Dahood, Mitchell, *Anchor Bible Commentary, Psalms*, vol.1, New York: Doubleday, 1982.

Kraus, Hans-Joachim, *Psalms 1-59*, Hilton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3.

Ram, Bernard,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Wilde, 1956.

Schweizer, Eduard, 『국제성서 주석: 마태오복음서』, 황현숙, 황정욱 역, 천안: 한국 신학연구소, 1990.

<Abstract>

**Book Review —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Texas: Biblical Studies Press, 2005)

Prof. Jun Hyun Kim  
(Luther University)

The New English Translation Bible (NET) stands on the long history line of English Bible translation. The uniqueness of the NET Bible is that it is published in print and on the web at the same time. This indicates that the NET Bible targets the so-called internet generation. While the printed NET Bible has limits to express all notes, the online NET Bible does not have any limits. The online version has 60,932 translator's notes (tn). In fact, the online version has 4 kinds of notes, which are tn, tc (text-critical note), sn (study note) and map notes. The descriptions for each note is as the following:

- tc** discuss alternate (variant) readings found in the various manuscripts and groups of manuscripts of the Hebrew Old Testament and the Greek New Testament.
- tn** is the most numerous. They explain the rationale for the translation and give alternative translations, interpretive options, and other technical information.
- sn** is explanatory notes intended for the nonspecialist engaged in the reading or study Bible.
- map notes** indicate for the reader where the particular location can be found in the map sections included in the NET Bible.

For example, Psalm 23 in the printed edition of the NET Bible has only six notes whereas its internet version has ten. When comparing the NET and ESV translations, it was observed that the NET Bibles tries to render new translation. In Isaiah 7:14, the NET chooses “young woman” instead of “virgin.” It may be a very innovative expression. The NET Bible provides a very long and important translator's note via its internet version, of which it is a great advantage. Moreover the web version is absolutely free.

Alongside these advantages, the NET Bible also has its weak points. One of the weakest points is the maps. Its maps are spectacular satellite images of the Holy Land with an overlay of site designations. While these are magnificent images reminding the reader that the events of the Bible took place in an actual terrestrial location, they aren't as much use for actual study. Because they are satellite photos, the natural orientation of these pictures, i.e. the direction in which they are turned, often presents the map in a direction other than vertical north.